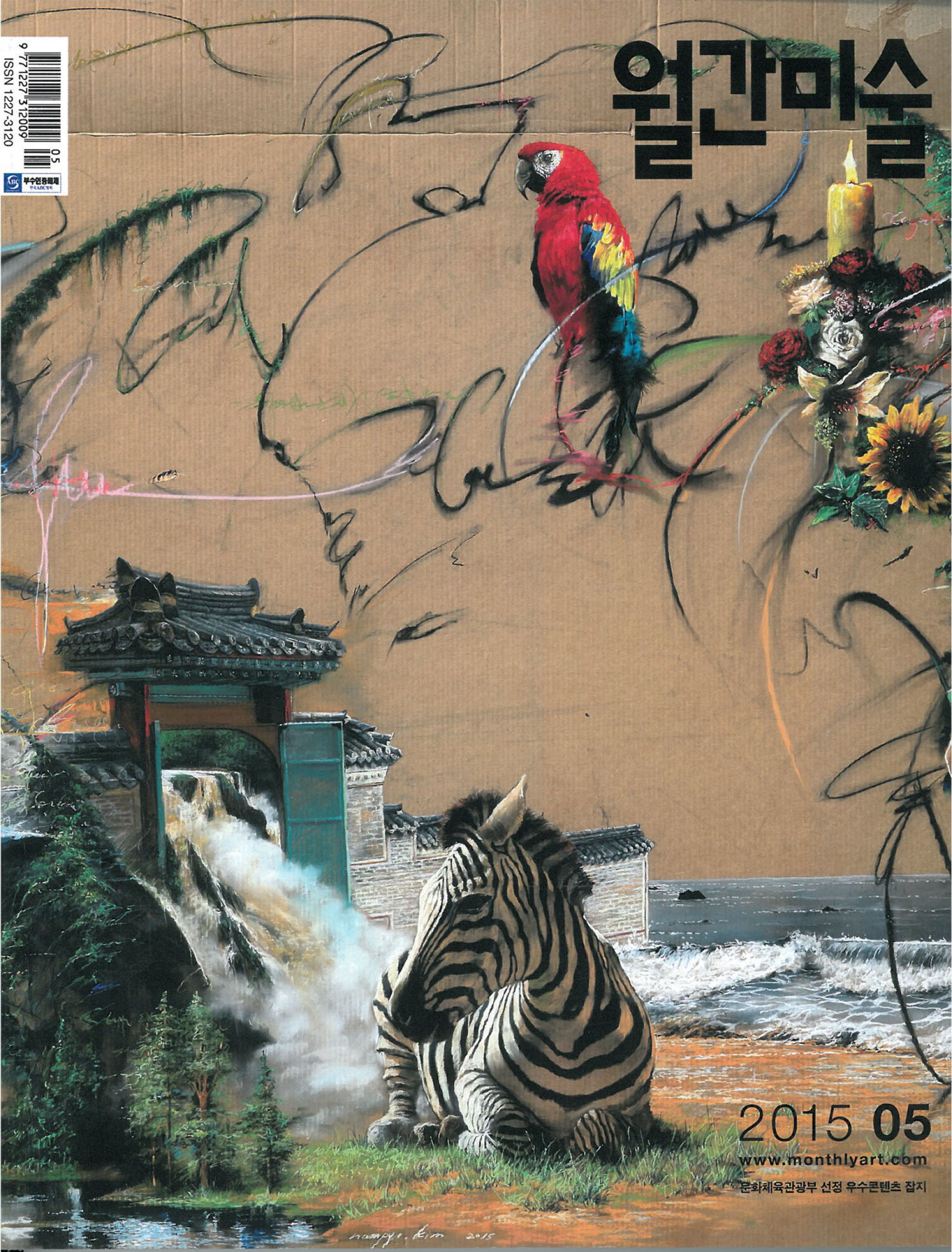


월간미술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05
부수인용등록
K-ARTIST



2015 05

www.monthlyart.com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

happy.kim 2015

여백의 공간에 예술을 세우다

이우환 공간(Space Lee Ufan) 개관

부산시립미술관 한켠에 새로운 공간이 들어섰다. 총 사업비 47억2,000만 원(국비 18억 원, 시비 29억2000만 원), 연면적 1,400m²(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이 건축물은 여백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작가 이우환의 작품 전시장이다. 그동안 이우환의 이름을 건 전시관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방 단체가 경쟁을 벌여 왔다. 이우환이 선택한 공간은 부산시립미술관 내 비교적 작은 부지다. 이전에 공중화장실이 있던 곳인데다가 주변이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구석진 장소다. 다소 의외의 위치다. 작은 별관의 개념으로 화폭에 새로운 고안을 창조해낸 이우환의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 있겠다. 부산을 택한 것은 아무래도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닌 인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7월 부산시와 건립협약을 체결한 후, 2014년 공사에 착수해 4월 10일 정식 개관했다. 이우환의 이름을 딴 개인미술관은 지난 2010년 일본 나오시마에 개관한 '이우환미술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우환 공간은 건물 설계와 인테리어, 작품 배치, 디자인 등 건축의 작은 부분까지 작가가 직접 관여했다. 전시장 자체가 이우환의 작품인 셈이다.

이우환의 작품은 그 자체가 지닌 예술적 아름다움만큼이나 전시되는 장소와 공간이 중요하다. 이우환 공간은 작가가 직접 공간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에 작품이 놓인 위치, 공간과의 조화 등이 특히 주목된다. 이점은 안도 다다오가 건축 설계해 공간 자체의 예술성이 큰 일본 나오시마의 '이우환미술관'과 차별되는 점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로 작품과 마주하지 않는다. 좁은 통로를 몇 번 거친 후에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제작된 회화와 설치작품 총 23점이 전시된다. 1층은 〈물(物)과 언어〉, 〈관계항-지각과 현상〉등의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2층은 1970~1990년대 회화를 중심으로 전시되었다. 특히 2층에 천장을 자연채광이 들도록 설치해 빛이 작품에 자연스레 녹아들도록 설계해 자연과의 조응을 이뤘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는 이우환 공간의 운영비를 일부 후원하고 관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